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 태도

유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발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한국인이 보이는 외래어 수용 태도

외래어의 차용은 다른 문화 집단과 접촉하면서 일어난다. 어느 사회 집단이든 다른 사회 집단과 접촉이 없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 사이의 교류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래어의 차용은 피할 수 없다. 어느 언어고 그 언어 안에는 반드시 다른 언어에서부터 들어온 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각 언어에 따라 외래어를 수용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예부터 외래어 수용에 있어 관대했다. 두 나라가 모두 섬에 있는 관계로 다른 나라들과 격리되어 있었고 따라서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자극받아 발전한 대륙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 섬의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는 노력에서 이 두 나라는 외래어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래어의 실용적 수용 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에 위치하지만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끊임없이 접촉해 온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나라는 외래어를 원어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고유한 낱말

로 바뀌어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른바 언어 국수주의, 또는 언어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김문창 1986).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독특하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특이한 지리적 환경과 중국이라는 세계적 문화 강국과 이웃하고 있는 특수 사정으로 우리나라의 외래어 수용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과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오직 중국만을 우리보다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여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중국 이외의 다른 이웃 민족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여간해서는 그들의 제도나 문화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이런 중국 문화와 그 외의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많은 이민족과 전쟁이나 교역을 통해 문화 접촉을 해 왔지만 우리 말에 남아 있는 외래어는 거의 대부분 한자를 통한 중국어의 차용이었다. 몽고에 지배당할 때 말과 관계된 용어나 매 사냥에 관련된 용어와 군사 용어에 관련된 많은 몽고말이 들어왔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빼 놓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또 청나라 때에 들어왔던 만주어나 기타 민족의 외래어도 거의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이렇게 특정한 외국 언어만을 외래어의 원천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외래어 수용 태도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의 지배를 받을 동안에는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중주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더니 광복 후, 미국의 영향이 강해진 뒤로는 미국이 우리가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주요 원천이 되었다. 실제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말에 새로 들어온 외래어들은 대부분 영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외래어를 받아들임에 있어 원천 언어에 대해 뚜렷한 선호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 뒤에는 예전에는 중국을, 일제 때에는 일본을,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려는 사대주의적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을 위해서는 이런 한국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래어의 수용 문제는 단순히 언어학이나 국어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언어학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적, 정치, 경제적 관점을 다 아우르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가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어떤 원칙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여러 관점에서 외래어를 분류하고, 이 분류를 바탕으로 어떤 부류의 외래어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류의 외래어는 피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2. 외래어의 분류

민현식(1998: 92~102)은 외래 언어 요소의 차용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언어단위에 따른 분류

- 가) 음운 차용: 분절음, 즉 음소의 차용은 거의 없고 억양, 고저, 장단과 같은 초분절 차원의 차원에서 무의식적인 차용이 있을 수 있다.
- 나) 형태 차용: 음운 차용에 비해 매우 드물다. 특히 조사나 활용 어미와 같은 굴절 형태의 차용은 거의 없다(토끼 소개팅, 고팅, 바보틱하다).
- 다) 어휘 차용: 가장 흔한 차용의 형태이다. 특히 한자어의 차용은 우리말 명사의 70%에 이를 정도로 많다(토끼 텔레비전, 라디오, 이데올로기, 이데아, 그 외 한자어).
- 라) 통사적 차용: 어휘보다 큰 언어 단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이카(my car)’와 같은 구에서부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와 같이 문장 전체를 차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용이 있다.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cannot ... Too...)’나 ‘...한 것이 그것이다.(it

… that…)'와 같은 구문의 차용도 가끔 일어난다.

마) 문자 차용: 예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한자를 차용해 기록을 남겼다. 이런 전통은 한글을 우리말을 적는 수단으로 쓰게 된 뒤에도 국한 혼용의 형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한자를 섞어 쓰지 않게 된 지금은 한자 대신 영어 문자를 그대로 한글과 섞어 쓰는 한영 혼용의 형태가 쓰이고 있다(토기) KBS, MBC, OPEC, IMF).

2. 차용 동기에 따른 유형

가) 필요적 동기에 따른 차용어: 뒤쳐진 사회가 학문, 경제, 산업 분야 등에서 앞선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문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일어나는 차용어이다. 이는 다시 일상 생활에 쓰이는 생활 외래어와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외래어로 나뉜다. 여기에는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 명사도 포함된다. 이 경우 차용어의 품사는 대부분 명사다.

(ㄱ) 일상 생활 외래어: 의식주, 문화 생활에 관련된 낱말(토기) 넥타이, 블라우스, 점퍼, 컴퓨터)

(ㄴ) 전문 외래어: 과학이나 학문, 예술, 스포츠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로 외래어 순화의 사각 지대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토기) 데이터 베이스, 랑그, 파퓰, 코너 킥, 킬로그램).

나) 잉여적 차용어: 특별한 필요에 다른 차용이 아니라 이미 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는데도 신기함이나 유행, 위세 부리기와 같은 언어 외적 동기에 따라 차용되는 낱말들이다. 잉여 차용어의 경우, 품사는 명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작이나 성질, 감각, 상태 등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일 때도 드물지 않다(토기) 키[열쇠], 히프[영덩이], 와이프[처, 부인], 텍사스촌[사창가], 오픈하다[열다], 렌트하다[빌리다], 스마트하다[똑똑하다]).

3. 원어유지에 따른 유형

가) 원형 외래어: 원어의 뜻을 유지하는 외래어

(보기) 이데아, 라디오, 텔레비전)

나) 변형 외래어: 원어의 음이나 뜻이 크게 변형된 외래어

(보기) 맨션[저택, 일반 아파트 > 고급 아파트], 콘도[분양 아파트 > 휴양 시설], 그릴[석쇠 > 고급 식당)

다) 신조어 외래어: 외국어를 바탕으로 새로 만든 외래어

(보기) 사인북[guest book], 오버 센스[oversensitive], 백넘버[uniform number])

4. 지속성에 따른 유형

가) 정착 외래어: 차용된 언어에서 한 세대 이상 계속 통용되어 그 언어의 어휘 목록의 하나가 되는 외래어다. 보통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들여온 외래어가 이에 속한다(보기) 텔레비전, 라디오, 이데올로기, 탱크, 호텔).

나) 일시 외래어: 한때 유행으로 쓰이다가 사라지는 외래어로 대부분의 잉여 외래어가 이에 속한다(보기) 후록코트, 파이한, 모던하다, 빠떼루).

외래어의 차용 방식에 따른 분류: 외래어는 또한 원어의 기호 전체, 즉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모두를 차용하느냐 아니면 시니피에만을 차용하느냐 또는 이 둘을 섞어 차용하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 각기 음역어와 의역어, 혼용어로 나눌 수 있고 또 이를 다시 원어에서부터 직접 차용했는가 아니면 다른 언어를 통해 간접으로 들여왔는가 하는 경로에 따라 직접 외래어와 간접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민현식 1998; 105~111, 송철의 1998; 25~26).

5. 차용방식과 경로에 따른 차용어 분류

가) 직접 음역어: 외래어의 발음과 의미를 직접 받아들인 외래어다
(보기)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텔레비전, 라디오, 램프, 예수, 배터리).

나) 간접 음역어: 발음과 의미를 원어에서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거쳐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외래어다. 우리말의 경우, 중국을 통해 받아들인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불교 용어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개화기 때에 일본어를 통해 받아들인 서양의 문물에 대한 차용어들도 이에 속한다. 또 영어를 통해 들어온 그리스어나 라틴어 어원의 차용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에 속한다(보기) 보살, 보리수, 열반, 중생, 귀의, 공양, 석가, 아미타, 미륵, 빠계쓰, 쓰레빠, 마후라, 잠바, 빠다, 뺨쓰, 이데아, 이테올로기, 스튜디오).

다) 직접 의역어: 원어에서 시니피에만 직접 번역하여 차용한 외래어다(보기) 돈세탁[money washing], 병목현상[bottleneck], 갓길[shoulder], 옆줄[sideline]).

라) 간접 의역어: 다른 언어에서 원어의 시니피에만 번역한 낱말을 다시 차용한 외래어다(보기) 세례[baptism], 민주주의[democracy], 인도주의[humanism], 이념[ideology], 철학[philosophy]).

마) 직접 혼역어: 외래어와 고유어나 한자어를 섞고 또 음역과 의역을 섞어 만든 차용어 외래어다.(보기: 체인점[chain store], 월가[Wall street], 휴대폰[mobile phone], 발칸포[balkan cannon])

바) 간접 혼역어: 다른 언어에서 음과 뜻을 혼용하여 차용한 낱말을 우리가 다시 차용한 낱말들이다(보기) 영국[England], 헬라스[Hellas], 나성[Los Angeles], 미국[America]).

3. 외래어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래어 순화의 문제점과 순화 방안

인류는 역사 이전 시대부터 다른 집단과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다. 이런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문물과 가치관을 교환했다. 새로운 문물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따르는 차용어를 함께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든 다른 언어에서부터 차용을 조금도 하지 않고 100% 순수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무분별한 외래어의 차용과 남용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차용을 제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에 대한 조정의 첫 노력은 보통 외래어 순화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래어 순화란 외래어를 원어의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시니피에만 취해 모국어로 번역하는 작업, 즉 직접 의역 차용을 가리킨다. 영어에서 철길이나 도로의 가장자리에 길의 보수 유지를 위해 남겨 놓는 공간인 ‘shoulder’와 이를 일본 사람들이 의역하여 만든 ‘노견’을 순 우리말인 ‘갓길’로 바꾼 것이 바로 이런 예의 전형이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자국어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국제 교류가 훨씬 많아지고 빨라져 엄청난 양의 외래어가 사용되는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모든 외래어를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언어 국수주의에 빠져 이런 방법을 너무 고집하면 오히려 언어 생활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뿐더러 외부 세계와 발 맞춰 발전할 시기를 놓쳐 버릴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각기 ‘무른 모’, ‘굳은 모’로 바꾼다든지 ‘공처가’를 ‘아내 무섭쟁이’로 바꾸는 일은 결코 일반 언어 사용자의 언어 직관과 거리가 있는 무리한 시도이다.

또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는 전문 술어의 순화는 경제성이라는 면과 언어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어학 전문 술어인 ‘랑그’와 ‘파롤’을 일본 사람들이 ‘능기’와 ‘소기’로 의역 차용하였는데, 이런 번역은 원어 술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다. 허웅(1981)은 이 용어를 각기 ‘갈무리된 말’과 ‘무려 쓰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했지만 그리 널리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언어 감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모처럼 번역한 전문 술어가 그 분야의 종사자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반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감각에 맞지 않아 쓰이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은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래어 순화는 서둘러 할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신중하게 선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문 술어의 경우에는 그 쓰임새가 널리 퍼져 일반인들까지 사용하게 될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외래어 순화의 예 가운데 비교적 성공한 것이 바로 ‘변별적’, ‘변별성’이란 용어이다. 원래 이 말은 한 언어학 단위가 대답하는 위치에서 서로 구분되는 차이를 가리키는 언어학 전문 용어 ‘distinctive’와 ‘distinctiveness’를 번역한 말인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외래어 순화 원칙이 필요하다(참조: 송철의 1998; 30~33).

- 1) 모든 외래어를 순화하려 들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여야 한다.
 - 가)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외래어가 ‘필요적 동기에 따른 차용어’이나 아니면 ‘잉여적 차용어’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컴퓨터, 라디오, 버스, 택시, 텔레비전’과 같이 이미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일뿐더러 적당히 대체할 순수 국어 어휘도 없는 필요적 동기에 따른 차용어 그대로 내버려 두고,

‘히프[엉덩이], 와이프[처, 부인], 텍사스촌[사창가], 오픈하다[열다], 렌트하다[빌리다], 스마트하다[똑똑하다]’와 같은 잉여적 차용어는 순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통적으로 쓰이던 한국어 낱말과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한 차용어는 이미 잉여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외래어를 먼저 순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날이 갈수록 외국 문물과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들어오는 외래어의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모든 외래어를 순화하기란 불가능할뿐더러 경제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순화 대상이 되는 외래어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올바른 외래어 수용에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 나) 어휘 차용이 아닌 ‘소개팅, 고팅, 바보틱하다’와 같은 형태 차용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cannot ... Too...)’나 ‘...한 것이 그것이다(it ... that...)’와 같은 통사적 차용은 반드시 순화해야 할 것이다. 어휘 차용은 우리가 외국 문물이나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지만 형태 차용과 구문 이상의 통사 차용은 민족의 주체성을 잃은 잉여적 차용이기 때문이다.
- 다) 원어 유지에 따른 유형을 기준으로 모았을 때에는 원형 외래어 보다는 변형 외래어와 신조어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맨션, 콘도, 그릴’과 같은 변형 외래어나 ‘사인복, 오버 센스, 백넘버’와 같은 신조어 외래어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휘 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색한 외래어를 쓸 이유가 없다. 이런 낱말들은 적당한 고유 낱말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라) 지속성에 따른 유형의 관점에서는 물론 정착 외래어가 아닌 일

시 외래어를 순화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와서 한 세대 이상 계속 통용되어 우리말 안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텔레비전, 라디오, 이데올로기, 탱크, 호텔’과 같은 정착 외래어를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시도다. 특히 우리 선조 때부터 써 내려온 한자어를 무리하게 순화하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말의 순수 어휘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을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못된 버릇은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시 외래어의 존속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순화 역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 간접 차용된 외래어는 순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간접 차용의 경우에는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은 요소들이 있게 마련이므로 우리말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해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간접 음역어 가운데 ‘바께쓰, 쓰레빠, 마후라, 잠바, 빠다, 뽀쓰’와 같은 일본어의 잔재는 이제는 많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간접 차용이라 하더라도 ‘보살, 열반’과 같이 차용된 지 오래되어 거의 우리말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 일반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감각에 맞게 순화해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외래어가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친숙하고 또 쉽게 이해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 외래어가 그에 대응되는 전통 어휘에는 없는 새로운 차이를 얻었느냐 하는 문제다. ‘자외선’을 ‘넘보라살’, ‘러시아워’를 ‘몰림때’라는 낱말로 순화하려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은 이 순화된 낱말이 어색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어 순화의 의미를 잃고 말았다. 또 이미 기존 낱말과 차이를 획득한 외래어를 무리하게 순화하려 한다면 한국어의 표현력이 그만큼 손상될 것이다. 예를 들어 ‘키’는 이미 ‘열쇠’와 다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므로 꼭 순화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언어 기호도 엄밀한 의미에서 잉여적일 수는 없다. 소쉬르의 말대로 모든 기호는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잉여적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씀으로 해서 얻게 되는 특수한 의미나 효과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가 외래어를 수용하거나 순화함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잉여적 외래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런 외래어는 당연히 순화 대상이 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언뜻 잉여적으로 보이는 외래어라도 고유한 쓰임새를 갖고 있다면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고유의 쓰임새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 단순히 언어학적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문화 현상 전체를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처럼 해 놓은 외래어 순화가 일반 대중의 언어 감각과 많이 차이가 나서 아무도 따르지 않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미 일반화된 외래어라 하더라도 그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원어보다도 어렵게 번역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철학 용어 ‘오성’은 영어의 ‘understanding’을 번역한 말인데 번역어가 원어보다 훨씬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외래어는 대신 ‘이해’나 ‘알기’와 같은 쉬운 말로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소여’라는 말은 영어의 ‘data’를 번역한 말로서 이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억지 번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data’라는 원어를 그대로 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4. 맺음: 외래어 수용의 올바른 태도

외래어의 차용은 한 인간 사회가 다른 사회와 접촉을 하면서 피할 수

없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외래어를 수용하는 태도가 국수주의적인가, 아니면 사대주의적인가, 또는 자주적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외래어를 남용하면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너무 국수주의적으로 편협한 태도로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나치게 꺼린다면 다른 민족들과의 교류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결과 세계 발전의 일반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낙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래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일은 한 나라의 글말살이를 가꾸어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 짓는 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 나라의 외래어의 수용 태도는 외래어 가운데 어떤 것은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리는 ‘외래어 순화’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어떤 한 나라의 외래어 수용이 올바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은 그 언어의 외래어 순화의 원칙과 방법이 올바르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래어 수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래어 수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외래어의 취사선택의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외래어를 언어단위와 차용 동기, 원형 유지 정도, 지속성의 정도, 차용 방식과 경로에 따라 분류하고 이 분류를 바탕으로 어떤 외래어는 받아들이고 어떤 외래어는 버릴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외래어에 대한 심사는 그 외래어를 우리말 어휘의 하나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표준어 사정의 한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까닭에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은 표준말 정책을 비롯한 언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외래어 사정에 대한 엄밀하고 개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런 길로 나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84), ‘현대 한국인의 외국어 빛 외래어 어휘 사용 양상과 그 문제점’, “한국어 연구 논문” 5, 서울: KBS한국어 연구회.
- 강신항(1985), ‘근대화 이후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2, 서울: 국어연구소.
- 강인선(1996), ‘현행 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고성환(1998), ‘신문, 잡지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1),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2),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3), “북한의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3), “기본 외래어 표기”,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3), “기본 외래어 표기 용례집: 동구권 지명, 인명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5), “기본 외래어 표기 용례집: 북구권 지명, 인명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5), “남북한 외래어 비교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 순화 용어 자료집”,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어연구소(1986),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인명, 지명편”, 서울: 국어연구소.
- 국어연구소(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일반 용어편”, 서울: 국어연구소.
- 김문창(1986), ‘외래어 연구(2)’, “어문 연구” 16-1,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상중(1996), ‘외래어와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세중(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 서울: 한국언어학회.
- 김세중(1996),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분석’,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

립국어연구원.

- 김세중(1996), ‘서양에서 들어온 말’, “한국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 서울: 한국 교열 기자협회.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8-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희진(1996),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1998), “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8-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유만근(1996), ‘외래어를 귀화시켜 국어다운 외래어로’,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이기문(1976), ‘국어 순화와 외래어 문제’, “어문 연구” 12, 서울: 일조각.
- 이선영(1998), ‘상표, 상호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이은경(1998), ‘방송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이정복(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허 웅(1981), “언어학 - 그 대상과 방법-”, 서울: 샘문화사.
- 허 웅(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오늘, 어제-”, 서울: 샘문화사.
- 허 웅(1981), “국어 음운학 - 우리말 소리의 오늘, 어제-”, 서울: 샘문화사.